

이전에 이나바 산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기후성(岐阜城)은 긴카잔 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. 성이 자리했던 유적은 2 km² 이상에 이르며, 현재는 국가의 사적으로서 보존되고 있다. 옛 고텐과 정원의 유구는 산기슭 부근에서 발견되었다. 산 정상에 있는 천수각은 1956년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복원한 것이다.

긴카잔 산의 첫 번째 성은 1201년~1204년 사이에 니카이도 가문이 축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. 1539년에는 사이토 도산(1494~1556)이 긴카잔 산을 장악하고 성채를 쌓았다. 사이토 가문은 3대에 걸쳐 성을 지켜오다가, 도산의 손자인 사이토 다쓰오키(1548~1573) 시대에 이르러 '기후'라고 명명한 오다 노부나가(1534~1582)의 공격을 받아 1567년에 축출되었다.

노부나가는 사이토 다쓰오키를 물리친 후, 좀 더 큰 바위와 당시의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성의 대부분을 다시 지었다.

포르투갈인 선교사 루이스 프로이스(1532~1597)와 귀족 관료인 야마시나 도키쓰구(1507~1579)에 따르면, 노부나가의 성은 정교하게 디자인된 호화로운 성으로 멋지게 장식된 아름다운 정원에 둘러싸여 있었다고 한다. 프로이스는 이 모습이 '지상의 낙원'과도 같다고 기록했다. 기후성은 노부나가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성임과 동시에, 포위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군사 요새이기도 했다.

노부나가의 손자인 오다 히데노부(1580~1605)가 성주로 있던 1600년, 기후성은 도쿠가와 이에야스 휘하 군대의 공격을 받고 파괴되었다. 그 후, 돌담과 목조 건물을 포함한 성의 일부는 남쪽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가노성을 건설하는 데 재사용했고 한다. 현재 산 정상에 우뚝 솟아 있는 천수각은 1956년에 복원된 것이다.